

에베소서 3

Let's turn to the third chapter of Ephesians.
에베소서 3장을 봅시다.

*For this cause [Paul said] I, the prisoner of Jesus Christ for you
Gentiles (3:1),*

이러하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3:1)

It is interesting that Paul was actually a prisoner of Rome, but as far as he was concerned, he was a prisoner of Jesus Christ, that is the one he was really bound to. "A prisoner of Jesus Christ for you Gentiles." The reason why Paul was persecuted and the reason why Paul was in prison is because he was insisting that the Gentiles could be saved by their believing in Jesus Christ, and this upset the Jews, who felt that the Gentiles could only be saved by becoming Jews.

이 부분은 바울이 실제 로마의 죄수였지만 그의 생각에는 자신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즉 "이방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자" 라고 하는것이 흥미롭습니다. 바울이 핍박을 받았던 이유와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 받을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방인들은 오직 유대교에 입교하여야만 구원 받을수 있다고 믿는 유대인들을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Thus, a Gentile could not be saved, only Jews could be saved and a Gentile had to become a Jew in order to be saved. So Paul's insistence that God is now offering salvation to the Gentiles so incurred the wrath of the Jews that they persecuted him or stirred up persecution everywhere he went. So that the imprisonments were the result of this basic teaching of Paul that you Gentiles can have salvation. So, "a prisoner of Jesus Christ for you Gentiles."

이리하여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수 없었고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았으며 이방인들은 구원 받기 위해 유대교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젠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제공하신다는 바울의 주장이 유대인들의 분노를 초래해서 그를 핍박하거나 그가 가는곳 마다 핍박하도록 선동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가르침 때문에 투옥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자”가 된 것입니다.

Paul said, "If I didn't preach this then the persecution would cease. They wouldn't have anything against me anymore." But Paul stood by that message of God's grace that had been given to him.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전파하지 아니하였다면 박해가 그쳤으리라. 그들은 더 이상 나에게 대적할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에 그의 입장을 지켰습니다.

If you have heard [he said] of the dispensation of the grace of God which is given to me for you (3:2):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가 말했습니다) (3:2):

Now, there are those who see seven dispensations. They see the dispensation of innocence, when God placed Adam in the Garden of Eden and God relating to man there in the garden in man's innocence. Then they see the second dispensation, (I forget what they call it), but it is from the time of Adam's sin unto the time of Noah, in which they see the third dispensation of the government of God which lasted until the time of the law, which they see the fourth dispensation of the law. And the fifth dispensation of Jesus here; the sixth dispensation, the dispensation of grace; the seventh dispensation, the millennial reign.

일곱 가지 경륜을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있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인간의 순수한 상태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순수성의 경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륜은(무어라고 부르든지 있었지만) 아담의 죄가 들어올 때 부터 노아의 때까지이며, 세 번째 경륜은 하나님이 다스림이 이 율법 시대까지였으며, 네 번째 경륜은 율법의 시대였고 다섯 번째 경륜은 예수께서 이땅에 오신 것이며, 여섯 번째는 은혜의 시대, 일곱 번째는 천년왕국입니다.

Paul is talking about the dispensation of grace, man has divided it up into those categories. I don't know that God has. I think that man does a lot of things that God doesn't necessarily endorse, even theologians.

We are living in an age in which God relates to Gentiles by His grace. It is a dispensation of grace given to us.

바울은 은혜의 경륜을 말하고 있으며 인간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은 알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 심지어 신학자들도 인정하지 않는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인 우리를 은혜로 관계를 맺어 주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경륜입니다.

How that by revelation he made known unto me the mystery; (as I already had written about in few words (3:3);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3:3);

Now, in chapter 1 Paul speaks of this mystery of His will, that in the dispensation of the fullness of time He might gather together in one all things in Christ, both which are in heaven and which are on the earth, even in Him. This mystery that God has chosen that all things should be bound up in Jesus Christ; things which are in heaven, things which are on the earth. God has brought all things in subjection unto Him, will put all things in subjection.

Paul said, I wrote a little bit about this mystery already,

일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말할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하나님이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택하셔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셨으며 앞으로도 복종케 하실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 비밀에 대해 조금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Whereby, when you read, you may have an understanding of my knowledge in the mystery of Christ,) which in other ages was not made known unto the sons of men, as it is now revealed unto his holy apostles and prophets by the Spirit (3:4-5);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3:4-5);

That is, this open door for the Gentiles to receive salvation is something that the Old Testament prophets did not foresee. This age of the church is something that was not seen by the Old Testament prophets. They felt that the coming of Christ would bring the immediate kingdom of God. They figured that the Messiah would usher in the kingdom age immediately and the Old Testament prophets did not really see this age of grace, when God would be drawing from among the Gentiles the body of Christ.

말하자면,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수 있는 문이 열린것은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예견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의 시대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보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왕국을 바로 건설 하시리라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의 시대로 당장 진입할것으로 파악했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실제로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이끌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실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They really didn't understand all that they saw or all that God revealed to them. They really wrote of things that they did not completely understand. But they wrote as the Holy Spirit inspired them. And thus, they themselves did not know the things that they were writing about or what their full significance was.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 하신것을 실제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썼습니다. 이리하여 그들 자신도 그들이 기록하는것을 알지 못했거나 그것들의 완전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Isaiah speaks of the coming Messiah, how that He will sit upon the throne of David and order it and establish it in righteousness and in judgement from henceforth even forever, the zeal of the Lord of Host shall perform this. And yet, Isaiah said that God's righteous servant would be despised and rejected of men, a man of sorrows, acquainted with grief, and we hid as it were our faces from Him.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를 말하면서 그가 어떻게 다윗의 왕위에 앉아 질서를 잡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심판으로 세울것이며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의로운 하나님의 종이 사람들에게 멸시 당하고 버려져 버리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마치 그는 우리의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는자 같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But He was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 bruised for our iniquities. The chastisement for our peace was upon Him, and with His stripes we are healed. All we like sheep have gone astray; we have turned every one to our own way, and God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And how He would be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in His death. And so he wrote of these things not really understanding the apparent inconsistency of the things that he wrote.

그러나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가 쓴것의 분명한 모순을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썼습니다.

Daniel, in prophesying the day that the Messiah would come, declared, and the Messiah will be cut off, and receive nothing for Himself, and the Jews will be dispersed.

다니엘은 그의 예언에서 메시아의 오실 날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며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받지 않으며 유대인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Yet, there did remain that mental attitude that the Messiah is going to set up His kingdom, and it was very prevalent even among the disciples. They were constantly looking for the immediacy of the kingdom of God. When Jesus, after His resurrection, gave the promise of the Holy Spirit to come upon them in a few days, they said, "Lord, will this be the time when You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Is this it, Lord?" They were constantly looking for the kingdom to be established immediately.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그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정신적인 태도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자들 사이에서 까지도 대단히 우세한 견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 지기를 끊임없이 바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며칠 후에 그들에게 임하실 성령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 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They did not know that there was going to be this period of the dispensation of grace, where God would be reaching out to the Gentiles to draw out from the Gentiles the body of Christ, the church of Jesus Christ. Draw out,

actually, from the world, because it was to include both Jews and Gentiles and make them one. The wall that had existed between them is going to be broken down and they are all going to become one body in Christ.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손을 내밀어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끌어 낼 은혜의 경륜의 시기가 있을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끌어 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합쳐서 하나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 사이에 있던 장벽은 무너지게 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것입니다.

When Paul speaks of it as a mystery, he means not something that is like we think of mysteries today, difficult to solve. It is something that had not been revealed in the past, but God is now revealing and making known. So it is a new revelation from God. This place of the Gentiles in the body of Christ and how that God was going to offer freely unto the Gentiles the glorious promises of eternal life and of salvation and of a place in the kingdom of God.

바울이 교회를 비밀이라고 말한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풀기 어려운 신비를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내셔서 알게하는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새로운 계시로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방인의 위치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치에 대한 약속을 그저 주실것인가 하는것입니다.

Paul said, "I want to write this to you so that you will understand my understanding of the mystery which in other ages was not made known, but it is now revealed by the Holy Spirit to the apostles and to the prophets. This is the mystery:"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다른 세대에서는 알지 못했던 비밀에 대하여 내가 이해한것을 너희들도 이해할수 있도록 돕고자 이 글을 쓰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성령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이니라. 이것이 비밀이니라" 고 하였습니다.

That the Gentiles should be fellow heirs, and of the same body, and partakers of the promise in Christ by the gospel (3:6):

The glorious mystery of God now revealed.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3:6):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밀은 이제 드러났습니다.

You Gentiles can have salvation, can have the promise of eternal life, can have the hope of the kingdom of God. You become a partaker in the grace and in the goodness of God.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선하심에 참여하는자가 되었습니다.

Whereof [Paul said] I was made a minister, according the gift of the grace of God that was given to me by the effectual working of his power (3:7).

So God laid upon me the ministry of sharing this glorious mystery--God's grace to the Gentiles.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군이 되었노라 (3:7).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비밀 즉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Unto me, who am less than the least of all saints, is this grace given, that I should preach among the Gentiles the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3:7-8);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군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3:8);

“What a privilege,” Paul said, “is given unto me the less of the least of all saints.” Paul's opinion of himself, this is the opinion of a man who has truly been called of God and really had a confirmation with Jesus Christ.

바울이 말하기를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특권을 주셨다” 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자신에 관한 견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확인을 받은 사람의 견해입니다.

When I see the way some people strut as they preach the gospel of Jesus Christ, my conclusion is that they really haven't had a personal confrontation with Him. If I have the attitude, "Lord, You are so lucky that You have me proclaiming Your truths. You don't know how fortunate You are, God. I could have been famous and I could have been great. I gave up fame and fortune. I am worth a lot to You, Lord." Those testimonies of what people have given up for Jesus Christ really don't move me. What I could have been doesn't really touch me.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기 양양하게 설교하는것을 보면 내 결론은 그들이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던가 하는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러한 태도를 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님, 당신의 진리를 전하는 나 같은 사람을 가졌으니 아주 다행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얼마나 행운이 있는지 모르십니다. 내가 유명해 질수도 있었고 위대하게 될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명예와 재물을 포기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했다는 사람들의 간증들은 내게 감명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이 될수 있었다는것은 정말 나의 가슴속에 와 닿지 않는 말입니다.

Paul's attitude toward himself, "Wow, God has given me this glorious ministry, the lessor than the least of all of the saints. The privilege given that I should be able to share the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impart them unto the Gentiles."

바울의 자신에 대한 태도는 이러합니다, "와아, 하나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사역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보다 더 작은 나에게 주셨네. 측량할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특권 주셔서 그것들을 이방인들에게 나눠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Paul felt that because of his previous persecution of the church, his endeavor to waste it, that anything that God did for him was through grace and he was really always, I think, sort of haunted by the fact that he was so blind at one time that he was trying to destroy the church. He makes mention of this, "for I wasted the church of God." Here his attitude, less than the least of all of the saints. But God has chosen

바울은 그의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일, 즉 교회를 없애 버리려했던 그의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하신 모든것은 은혜로 말미암은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바울은 한때 그가 눈이 가리워서 교회를 파괴하는데 열심이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 그가 항상 번민했던것 같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여기에 나타난 그의 태도는 그가 모든 성도중에 지극히 작은자 보다 더 작은자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습니다.

that all men may see what is the fellowship of the mystery, which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has been hidden in God, who created all things by Jesus Christ (3:9):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3:9):

Now, you notice that all that God has done for us is by Jesus Christ as we have been going through these first two chapters on into the third chapter. Anything and everything that God has done for you He has done in and through and by Jesus Christ. These glorious mysteries hid from the Old Testament prophets now revealed through the prophets and the apostles in the New Testament, these marvelous riches of Christ that are available to all men.

자,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은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것임을 앞의 1,2장과 3장의 앞 부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행하신 어떤 것들이나 모든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비밀은 구약 선지자들에게 감춰어졌던 것인데 이제 신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모든 사람이 이용할수 있다는것을 알려졌습니다.

To the intent that now unto the principalities and powers in heavenly places might be known by the church the manifold wisdom of God (3:10),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3:10)

You remember Peter writing of these things said, "Which things the angels even desire to look into." (I Peter 1:12). You see, angels are not omniscient as is God. They do not know the full purposes or the plan of God. I am sure that they have interesting sessions and discussions as they see the purposes of God being unfolded.

베드로가 이 것들에 관하여 쓰면서 말한것을 기억하시겠죠, "이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벧전 1: 12).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천사들은 전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목적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내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알려질때 그들이 재미있는 회의와 토론을 할것입니다.

Now, the angels did have a better grasp of prophecy than did man. When God would reveal the things through the prophets, they did have a grasp of these things. But not a full understanding. It took the working out of the plan for them to come into a full understanding.

천사들은 사람들보다 예언의 뜻을 더 잘 파악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계시하실때 천사들은 이것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려면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질때 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Peter in writing of these things said, "We have the more sure word of prophecy" (II Peter 1:19). "He showed Himself alive by many infallible proofs" (Acts 1:3), but we have the more sure word of prophecy and so forth, which things the angels desired to look into. Paul said, "That the principalities and powers, which are the angels, that they might know by what is happening in the church, the manifold wisdom of God."

베드로는 이 러한 것들에 관하여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벧후 1:19)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 습니다" (행 1:3),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로 말미암아 정사나 권세들이나 천사들로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했습니다.

I would imagine that it is a very shocking and awesome thing to the angels that God decided to come and indwell man. That God would actually come and dwell within man. This is that glorious mystery that God actually will indwell you by His Spirit through Jesus Christ.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셔서 그 사란안에 내주하시겠다고 결정하신것은 천사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이고 두려운 일이 였으리라고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에게 오셔서 내주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실제로 당신안에 내주하시리라는 영광스러운 비밀입니다.

My body can become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that Christ dwelling in me is my hope of glory. This marvelous mystery. The angels said, "Wow, can you believe that?" It is revealed, God didn't reveal it to them, except, as it took place within the church.

나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될수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나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천사들도 "우와, 그걸 믿을수 있니?" 라고

말했을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으셨지만 그 일이 교회안에서 일어났을때 나타났습니다.

According to the eternal purpose which he purposed in Christ Jesus our Lord (3:11):

That was God's plan from the beginning.

In whom we have boldness and access with confidence by the faith of him (3:12).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3:11):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3:12).

In chapter 1 it says we have been accepted in the beloved. God accepts me. Now it says we have access unto God. That was, of course, something that was withheld even from the Jew. They did not have access to God. They came to God through the priest. He would enter into the presence of God for them.

일장에서 우리는 사랑 받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 갈수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유대인에게서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 갈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 갔습니다. 제사장이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When God gave the law to Moses, He said, "Cordon off the mount. Don't let man come close, lest he be destroyed." Moses went up and communed with God. When the people saw the awesome phenomena of the presence of God, they fled, and they said to Moses,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내려주실 때, "산을 차단하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교제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두려운 현상을 보았을때 그들은 도망하여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You go up and talk to Him and you come down and tell us what He said, but we don't want to get near. That is awesome the fire rolling around the ground, the thunder and all of these things. And you go up and we will listen to you, and we will take what you tell us that God says, but we don't want to approach that.”

“당신이 산에 올라가 하나님에게 말씀 드리고 나서 내려와 그가 말씀 하신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요. 그러나 우리는 근처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지면 주위를 도는 불이며 우뢰이고 또 이 모든것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당신이 올라 가소서 그리하면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들으리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 우리가 받아 드리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가까이 가지 않으리이다.”

And as God established the law, then it was the high priest who went into the Holy of Holies before God for the people and that was only once in a year, one day in a year. But now we have access to God. There is no veil any longer to hold you out.

그리고는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셨을때, 대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 일년에 한차례씩 하루동안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휘장이 당신을 가로 막지 않습니다.

It was extremely significant that at the crucifixion of Jesus the veil was rent or torn from top to the bottom and God was just now saying through Jesus Christ you can all come. You have access to God. In Hebrews it says, “that we may come boldly before the throne of grace to make our petitions known.” Through Jesus Christ we were once alienated from God and could not approach Him, and now have been brought close, been brought nigh, access to God. And then here again, boldness and access, as in Hebrews, “come boldly to the throne of grace.”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때 휘장이 찢어졌고 위에서 부터 아래로 찢어졌으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올수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나아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 “우리의 구하는것을 알리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며 그에게 나아갈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셨으며 하나님께 나아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히브리서에서 담대함과 나아 가는것에 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고 합니다.

That timidity that some people display, “Oh, I really don't think that I am worthy to come to God. I will just go to one of the saints and ask him to go to God for me,” is unscriptural and it's wrong. When God opens the door and says, "Come on in," it is wrong for you to hold back. We come boldly. We have access, boldness and access, confidence by the faith of Him.

어떤 소심한 사람들은 “오, 나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올 가치가 없다. 나는 그저 한 성인에게 가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가라고 요구 하겠다” 라고 말하는 데 그것은 비 성경적이고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들어 오너라” 라고 하실때 당신이 억제하는것은 잘 못된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수 있습니다.

Wherefore [Paul said] I desire that you faint not at my tribulations for you, which is your glory (3:13).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3:13).

Paul had gone through so much to bring them this message. The prisoner, beaten, scourged, buffeted, stoned. “Don't faint at my tribulations, because it is all for your glory.”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수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채찍으로 맞았으며 돌로 맞았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For this cause I bow my knees unto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3:14),

이러하므로 내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3:14)

So Paul's prayer for them, the attitude in prayer, physical, of bowing his knee, but there are many attitudes for prayer physically. It isn't really the physical position that counts when I come to God; it is the position of my heart. “He that comes to God must believe that He is and that He is a rewarder of those that diligently seek Him” (Hebrews 11:6).

그래서 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는 신체적인 기도 자세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신체적인 자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 올때 실제로 중요한것은 육체적인 자세가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본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6)

So the people who have a hang up, “you’re not really praying unless you are on your knees,” is not really a scriptural hang up, it is just their own hang up. The scripture talks about standing, lifting holy hands in prayer. David lying with his face in the dirt crying unto God. Many places they are lying prostrate before the Lord. So sitting, lying, kneeling, standing, that is not what counts, but what is the position of your heart as you come to God.

“네가 무릎을 꿇지 않는한 너는 진정한 기도를 하는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문제를 갖는 사람은 그것이 실제로 성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가 자신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서 하는것과 거룩한 손을 들고 하는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얼굴을 땅에 대고 누워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앉든지 눕든지 무릎을 꿇든지 혹은 서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올때 당신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I bow my knees unto the Father.” Prayer is unto the Father,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Whatsoever things you ask the Father, that will I do that the Father may be glorified in the Son.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는 아버지에게 하는것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던지 내가 하는것이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입니다.

Of whom the whole family in heaven and earth is named, that he would grant you [Paul’s prayer for them],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lory, to be strengthened with might by his Spirit in the inner man (3:15–16);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3:15-16)

How we need strength in our inner man. Satan is constantly setting before us temptations. He is a powerful foe. I do not have the strength within myself to stand against him, I need God's strength by His Spirit in my inner man if I am to

stand before the power of the enemy. Paul prays that you might be strengthened in the inner man by His Spirit.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유혹 받을 만한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강력한 적입니다. 내 안에는 그에게 맞설 힘이 없습니다. 내가 강력한 원수 앞에 서야 한다면 나의 속사람은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기를 기도합니다.

Secondly,

That Christ may dwell in your hearts through faith (3:17);

둘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3:17);

The word *dwell* in the Greek is to settle down and to make himself at home, that Christ might really be at home, be comfortable, be at ease. There are places where you go and you feel out of place the moment you are there. You feel uncomfortable, you wish you had not come, you are not in harmony with what is going on. Then there are other places where you go and you feel so comfortable, so at ease, so relaxed.

희랍어의 *계시다 (살다)* 는 단어의 의미는 자리 잡다 (정주하다) 라는 것이며 그를 편안하게 하게 한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편하게 느끼시도록 하는것, 마음 편하게 하는것, 안심하는것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가면 그곳에 가자마자 잘 못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곳이 있습니다. 불편하게 느끼고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느끼며 그곳에 벌어지는 것과 맞지 않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곳에 가면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긴장이 풀리는 곳도 있습니다.

Now, “that Christ might be at home in your hearts” means that your heart might be so in tune and all with Him that as He dwells within your heart there is no strain, there is no embarrassment for Him.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편안하게 느끼신다” 는 말은 그가 우리 마음속에 계실때 그분과 잘 맞아서 긴장할 일이 없고 그분을 당황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You remember how that Ezekiel, that interesting prophet, how God dealt with him in many strange ways, was taken by the Spirit to Jerusalem. There was this wall there and God said, "Dig a hole through the wall," and he dug a hole through the wall and crawled in.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가지 이상한 방법으로 다루신 재미 있는 선지자 에스겔을 성령에 의해 예루살렘에 데려 가신것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벽이 있었고 하나님이 "벽에 구멍을 뚫으라" 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벽에 구멍을 뚫고 기어 들어갔습니다.

And he looked and here was all kinds of pornography all over the walls. Ezekiel said, "That is horrible, filthy pornography. What's that all about?" God said, "I have allowed you to go within the minds of the leaders of Israel. These are the things that they are thinking, these are the things they are seeing."

그리고 그가 보았더니 온갖 음란한 그림들이 벽에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끔찍합니다. 더럽고 음란한 그림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에 관한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도록 허용하였었노라. 이것들이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며 보는것들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When Christ dwells within your heart and looks on the walls, is He at home, is He comfortable with what He sees? Or when He knocks on the door, do we say, "Wait a minute," and we go around and try to cover everything, or turn things around backwards?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에 계시며 벽을 바라보실때 그 분이 보시는 것으로 마음이 편하실까요? 아니면 그 분이 문을 두드리 실때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한후 가서 모든것을 감출려고 할지 아니면 뒷쪽으로 돌려 놓을까요?

"That Christ may be at home in your hearts by faith;"

that you might be rooted and grounded in love (3: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3:17),

Oh that we would experience more of that love of God and the love of Jesus Christ and that it might really flow forth from our lives. Rooted and grounded in love.

오 하나님과 예수님의 더 많은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이 흘러 나오도록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합니다.

That you may be able to comprehend with all saints what is the breadth, and the length, and the depth, and the height; and to know the love of Christ, which passes knowledge (3:18-19),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3:18-19),

Here is an interesting request, because how can you know something that passes knowledge? The word *know* is *ginosko*, which is know by experience.

여기에 재미있는 요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을 능가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기노스꼬* (*ginosko*) 이며 그것은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Now his prayer: "God loves you so much, I pray that you might know the depths of Gods love for you, the length of God's love, the height of God's love. If you could only fathom the depths, if you could only explore the heights, if you could only see the length, to the length to which God was willing to go to save you. The depths to which Jesus was willing to come in order to redeem you.

이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나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노라. 너희가 그의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측량할수만 있다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길이까지 기꺼이 가시기를 원하시는 길이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오실 그 깊이를 말합니다.

The heights to which God intends to bring you. That He might seat you together with Christ in heavenly places and make you a joint heir with Christ of His eternal kingdom. Oh the heights of the glory that God has for you. If you could only know," Paul said, "comprehend that which is beyond knowledge. Hey, you cannot know it, it is beyond knowledge."

그 높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늘에 끌어 올려 당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셔서 그의 영원한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게하시기 위한것 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의 높이 입니다. 만일 당신이 알기만 했더라면,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것을 알라” 고 말했습니다. 그건 알수 없어요. 지식에 넘치는것은 모릅니다.

The next request,

that you might be filled with the fullness of God (3:19).

그 다음 요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3:19).

Now, again, that is something that in the physical is impossible. That I could be filled with the fullness of God. The heavens of heavens cannot contain God. How much less me? That I might be filled with the fullness of God. Now, realizing that he has asked some pretty tough things, he says,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충만한것으로 충만해 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하늘과 땅도 하나님을 모실수 없습니다. 나는 얼마나 더 작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충만한것으로 충만해 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는 대단히 어려운 것들을 요구한다는것을 깨달은 후에 그가 말하기를,

Now unto him who is able to do exceeding abundantly above all that we ask or think (3:20),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3:20),

How many times I think that we limit God by our own limitations. We carry our own limitations over into the spiritual realm. We are prone to place things in categories: that is very easy, that is simple, no problem, oh that is pretty tough, that one is difficult. Hey, that is impossible. We are prone to carry these over to God, and it reflects even many times in our attitude of prayer, “Lord, this is a simple thing. You can handle this one. Lord, this is pretty tough. I really don't know. Forget it, Lord. It is impossible.”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기준으로해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점을 영적인 영역에도 끌어 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범주에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쉽다, 그것은 간단하다, 문제 없음, 어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것은 어렵다. 여보게, 그것은 불가능 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에게도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처리 하실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잊어 버리세요, 주님. 그것은 불가능 합니다.”

We are prone to carry over unto God those human feelings that we have concerning situations. How many times God has done things that I thought were totally impossible, things that I had given up on. People that I had said, “Hey, no way.” Then what does God do? Turns around and saves them. I can't believe it.

우리는 상황에 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감정을 하나님에게 적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전혀 불가능했던 일이나 내가 포기했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전혀 가망성이 없어” 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아서서 그들을 구원 하셨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Jonathan,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his mind playing with an interesting thought. “I wonder if God wants to deliver the Philistines to Israel today. If God wants to deliver the Philistines to Israel today, He doesn't need a whole army. If God wants to do it, He could deliver them into the hands of one man just as easy as He could the whole army. I wonder if He wants to deliver them today?”

요나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재미있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부치실지 궁금하군. 만약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오늘 이스라엘의 손에 부치시면 모든군대가 필요하진 않으시겠지?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모든 군대에게 하시듯 단 한 사람의 손에도 그들을 부치실수 있을거야. 오늘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부치실지 모르겠군.”

This crazy thought running through his brain, he can't get it out of his head. And so he wakes up his armor bearer and he says, “I'm having a crazy thought. You know, I was thinking, if God wants to deliver the Philistines to Israel He doesn't need the whole army, after all He is God. He could deliver the

Philistines to Israel to just one man, just as easily as a whole army. Let's go over and see if God wants to deliver the Philistines this morning.”

이러한 생각들이 그의 머리 속을 떠나지 않자 그는 그의 병기 든자를 깨어 말하기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내 머리 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내가 생각한 바로는 만일 하나님께서 불레셋 사람을 우리 손에 부치시면 하나님께겐 대 군이 필요한것이 아니니까.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시거든. 하나님이 불레셋 군을 이스라엘, 대 군이 아닌 단 한사람에게 부치실수도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의 손에 부치실런지 일어나서 가보자.”

I love it, let's see what God might want to do, let's venture out in faith. Who knows what God might want to do? He doesn't need a whole army. We measure things by our abilities. “Now unto Him who is able to do exceedingly abundantly above all that we ask or think.”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믿음으로 모험하는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에게는 큰 군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물을 우리의 능력으로 측정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엡 3:20).

We oftentimes are intimidated by certain diseases, by certain illnesses, because they have been diagnosed by man as incurable. Thus, we have a different prayer for Leukemia than we do earaches, or headaches. “Lord, he has got a headache, relieve him, Lord, help him to really be able to function today. Thank you, Lord.” No problem. If God doesn't come through, take an aspirin.

우리는 빈번히 어떠한 질병이나 병으로 위협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불치 병으로 진단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귀가 아프거나 치통이 있을때 기도하는것과는 달리 백혈병에는 다른 기도를 합니다. “주님, 그 사람이 두통으로 앓고 있습니다. 고쳐 주세요. 주님, 오늘 활동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시지 않으면 아스피린을 드세요.

“Leukemia, No! Oh, God, help! God, oh Lord God of heaven.” Man leukemia, you have got to really pray for that. You have...it takes really getting worked up into that one. That's tough. Hey, it is no more difficult for God to heal leukemia than it is a common cold. God doesn't have these categories of difficult or easy or impossible. They don't exist with God. He is able to do exceedingly abundantly, and we need to remember this when we pray. We need in prayer to be freed from our human limitations and this idea of difficulty.

“백혈병, 안 되요, 하나님, 도와 주세요. 오 맵소사.” 아, 백혈병, 정말 기도 많이해야겠습니다. 백혈병에 걸렸으니 정말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건 어려운데. 여보시요, 하나님에겐 일반 감기나 백혈병이나 어려울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어렵다, 쉽다, 또는 불가능하다는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겐 그런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때 기억해야 할것은 그분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행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때 인간의 한계나 어렵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야합니다.

“Now unto Him who is able to do exceeding abundantly above all that we ask or think.” God can provide a million dollars for you just as easy as He can provide five cents. He is able to do exceeding abundantly above all that you ask or think. Why do we limit Him? “Lord, I need a nickel.” So I start looking around the ground. It shouldn't be too hard to find a nickel. Flip the coin boxes in the telephones.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백만 달러를 주시는 것은 5 쉼트 주시는 것 만큼 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능력 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합니까? “주님, 5 쉼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땅바닥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오전 짜리 하나 찾는건 어렵지 않습니다. 공중 전화의 동전함 속에 손을 넣어보십시오.

Paul as he prays, prays with that awareness, that confidence that God is able. We need to have that confidence when we pray.

바울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인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때 확신을 가져야합니다.

Unto him be glory in the church by Christ Jesus throughout all ages, world without end (3: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3:21)

This beautiful little benediction that he tacks onto his prayer. Glory in the church, by Christ Jesus throughout all ages, world without end, and so shall it be. So shall it be.

그는 그의 기도 끝에 아름다운 짙은 축도를 부쳤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World without end, we will bring glory and praise unto God because of His grace towards us through Jesus Christ. In heaven we will be much the same things we are doing on the earth, as we are just giving thanks unto God for His mercy and grace to us,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같이 거의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So many people are looking for heaven to bring so many radical changes in their lives. But you see, God wants to make those radical changes right now so that heaven will not be a shocking kind of a transition for you. God is working in us now.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그들의 삶에 굉장한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충격적인 변화가 되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Those eternal things as He is preparing us for the eternal kingdom. They are not going to be as radical a change as you think. God wants it to be a smooth transition. It would be glorious to be in heaven for an hour or two before you realized you were there. To walk so close to the Lord, to live in such communion with Him, to walk so in His presence and in His love and all. Hey, wait a minute. Something is different here. Where am I? Wow!

Oh, God help us to so walk with Jesus in close communion.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위해 우리를 영원한 것으로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급작스러운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드러운 전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천국에 가면 그곳에 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한 두시간 동안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걷고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살고 주님의 앞에서 그의 사랑을 받으며 걷고 하는 모든 것이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이봐, 잠깐만. 여기에 뭔가 달라. 내가 어디에 있지? 와와.

오, 우리가 깊은 교제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 주소서”